전소정 The One Wor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Arts Council Korea 2022-2023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Jun, Sojeong 2023

전소정(b. 1982)은 '타자', '감각'의 영역을 작업의 중심축으로 두고, 이산, 이주, 유목, 망명에 결부된 개인적, 사회적 삶의 조건들을 감각적 번역을 통해 인식하고 재위치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영상, 설치, 조각, 사운드, 퍼포먼스, 출판 등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키는 비선형적 시공간을 창조하거나, 인터뷰, 역사적 자료, 문학과 글쓰기, 음향적 감각을 중심으로 현재적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현실과 공간을 탐색해 온 작가는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상상적 공간을 가설하고 분화된 감각의 경계를 통합하여 인식의 확장을 시도해왔다. 또한, 작업과 비평의 생산 관계에 관해 질문하며 다양한 관점의 평론가, 타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실험적인 텍스트들을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하고, 시각예술가 안정주와 프로젝트 밴드 '검은밤' 멤버로 가사를 쓰고 노래와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일련의 출판 및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작가는 여러 협업자와 연대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업을 시도한다.

전소정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스위스 베른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아뜰리에 에르메스, 아르코미술관, 파리 팔레드 도쿄 미술관, 파리 빌라 바실리에프, 제11회 광주 비엔날레, 삼성미술관 리움, 오사카 국립 미술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4 제14회 송은미술대상, 2016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2020년 제18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 5월 영국 기획자 조셉 오코너가 추진한 글로벌 공공미술 프로젝트 CIRCA에 한국작가로 처음 참여한 바 있다.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그녀의 작품은 한네프켄 파운데이션, 울리 지그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오사카 현대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두산아트센터, 송은미술재단 등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및 기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Sojung Jun (b. 1982) has dedicated her artistic practice to perceiving and recontextualizing the conditions of personal and societal live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mes of diaspora, migration, nomadism, and exile. She delves into the realms of the 'other' and the senses, aiming to evoke new perspectives on the present. Jun's body of work spans various mediums including video, installation, sculpture, sound, performance, and publishing, consistently crafting non-linear narratives of time and space. Beyond conventional boundaries, she explores alternative realities and spaces, drawing from interviews, historical archives, literary writings, and acoustic experiences. Jun endeavors to create an imaginary space that integrat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hile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sensory perception. Furthermore, she has collaborated with critics and experts from diverse fields to produce experimental texts, raising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creation and criticism. Jun's creative endeavors extend to music, where she contributed as a lyricist, vocalist, and instrumentalist for the project band *Black Night* alongside visual artist Jungju An. Committed to collaboration, she continues to engage with fellow artists and collaborators in pursuit of solidarity and collective creativity through a series of publications and projects.

Sojung Jun has showcased her work in numerous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at esteemed institutions worldwide. Her work has been presented at prominent venue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Seoul; Kunstmuseum Bern, Bern;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Atelier Hermès, Seoul; ARKO Art Center, Seoul; Palais de Tokyo, Paris; Villa Vassilieff, Paris; the 11th Gwangju Biennale, Gwangjul; Leeum Museum of Art, Seoul;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Jun received the 14th SongEun Art Award in 2014, the Gwangju Biennale Noon Art Prize in 2016, and the 18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n 2020. In May 2021, she participated for the first time as a Korean artist in a global public art project CIRCA promoted by British curator Joseph O'Connor. She was a candidate fo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Artist of the Year Award in 2023. Her works are permanently collected by prestigious art museum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Han Nefkens Foundation, the Uli Sigg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Leeum Museum of Art,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Ulsan Museum of Art,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Doosan Art Center, and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연구 개요

아르코의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사업으로 진행된 본 출판물은 그 어느 곳에도 영원히 정박할 수 없는 망망대해로 독자-관객들을 이끌며 쉽게 해명되지 않는 작품들과 비평의 생산에 집중되었던 전소정의 예술 세계에 어쩌면 잠시 거처할 임시 천막을 세우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 총괄기획자와 책임연구자가 작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친 후 연구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2명의 주 연구자, 5명의 외부 필진이 참여한 본 프로젝트는 한 명의 연구자가 하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본연의 작품 연구에 몰두해 학술적 의미를 지니는 에세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우선 전소정의 예술 세계가 점유하고 있는 무한한 시공간으로부터 특정한 하나의 순간으로 소급해 나가기 위해, 한 작품이 미칠 수 있는 막연한 동시대의 시공간을 네비게이팅하며 전소정의 작품들이 어떠한 경로를 지나 인간과 역사의 서사를 직조하고 현재에 이르렀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최근 100년 동안 근대 인류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순간,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 작가가 서 있던 그 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주 연구자로 참여한 마정연과 김성은은 각각 영상 미디어와 인류학적 기반의 심도 있는 미술 비평을 통해 물리적, 신체적 이동의 제한, 실제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교차가 가속화되었던 '2021년'이라는 구체적 시공간에서 제작된 두 개의 작품 〈기계 속의 유령〉(2021)과 〈그린 스크린〉(2021)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두 개의 주요 연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전소정 작업에 어떤 의미로 작동했으며, 이후 작가의 예술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주 연구자 마정연은 「전소정의 영상미디어 실천에 관한 고찰: 〈기계 속의 유령〉을 중심으로」(2023)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팬데믹 시기 제작, 발표한 〈기계 속의 유령〉에 활용된 '드론(drone)'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생물과 융합한 하이브리드 매체로서 이 기계가 생산한 동시대 이미지의 유령성을 탐구한다. 협업자 안정주와의 공동 작업인 〈기계 속의 유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기능을 중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당시 미술관을 무대로 일종의 연극적 상황을 만들었다. 마정연은 〈기계 속의 유령〉의 설치 무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육군 기무사가 사용하던 건물이라는 장소의 역사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주요 매체로 등장하는 '드론(drone)'의 미디어 기술을 군사적, 생태적 의미로 확장하고 '군부'에 의해 통치되는 전체주의 국가의 통제나 '전쟁'과 같은 문맥을 소환했다.

2021년 제작된 또 다른 작품 〈그린 스크린〉에서 전소정은 시각 중심의 근대 문화에서 비켜난 '소리'의 (비)물질성에 대한 탐구를 더욱 심도 있게 전개한다. 주 연구자 김성은은 언어나 음악 등 소리를 특별하게 다뤄 온 이전 작업과의 연계 속에서 이 작품을 작가의 수완이 가장 급진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비무장지대를 촬영한 이 영상이 국경의 풍경을 '보여주는 방식' 대신 "듣기가 우세한 소통 방식"에 기반해 담아냈다는 점에 주목한 김성은은 '소리 인류학'의 관점에서 전소정의 작업을 이론화한다..

이 밖에도 남북의 음악을 다룬 일련의 작업들에서 전소정은 악기와 작곡의 역사를 통해 전통과 현대 간, 문화 간, 시대 간에 일어나는 음악미학의 번역과 소통에 집중했다. 외부 필진으로 참여한 자넷 비숍(Jeanette Bisschops)은 전소정의 〈먼저 온 미래〉(2015)를 분석한 글 「감정을 담아 한번 더」(2023)에서 탈북 피아니스트와 남한 피아니스트의 대화, 작곡, 협연의 과정을 통해 두 연주자와 관객 사이를 관통하는 연대와 소통의 감각에 주목한다.

전소정은 2022년 〈야고〉, 2023년 〈싱코피〉를 연이어 발표하며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파괴와 재생, 인공과 자연, 기계와 생태의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생태적 관계와 얽힘의 모티프와 병존시킨다. 이번 연구의 외부 필자인 마틴 게르만(Martin Germann)과의 인터뷰에서 전소정은 농업사학자 후지하라 다쓰시(Tatsushi Fujiwara)를 인용하여 자신의 매체 작업들이 생산과 소비에 매몰된 사고, 균질하고 지배적인 덩어리로 인식되는 것들을 전복시켜 분해의 세계로 재고하기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팬데믹 이후 전소정은 인간과 식물,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과 속도의 문제들을 파고들었다. 근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감각으로써 '속도'에 대한 경험을 포착하고자 국경을 넘는 언어의 속도, 정원을 탈출하는 식물의 생태적 속도, 기차의 속도, 데이터의 속도 등을 겹쳐보면서, 그것이 파열시키는 현대사회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작가는 근대적 속도를 벗어난 사람, 식물, 데이터 등 비가시적 존재들이 경계를 이탈해 어떻게 유랑하고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지 비추며, 변신과 변형을 거듭하는 이들의 신체성을 시각이 아닌 감각들로 경험시킨다.

2년간 진행된 본 작가 조사-연구-비평 프로젝트는 지난 10여 년간 작가가 느슨한 연대를 맺고 함께 작업해 온 많은 비평가의 기존 연구가 밑바탕이 되었다. 본 출판물에는 김남시, 안소연, 허호정의 글을 재수록하여 2021년 이전 주요 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수록했다. 전소정의 초기 작업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감각적으로 반복되는 이방인의 이미지를 언어, 정치, 문화, 지정학적 맥락에서 분석한 허호정의 미발표 원고 「이방인, 항해로부터 순간이동까지」(2019/2023), 매체적 조작과 조합을 통해 감각을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감각의 통합을 이루어낸 전소정의 작업 과정을 매체미학의 관점으로 분석한 김남시의 「매체와 감각의 질서」(2017), 한국 근대 아방가르드 시인 이상(1910-1937)의 초기 시 연구에서 시작된 전소정 개인전 《AU MAGASIN DE NOUVEAUTES》(2020)에서 작가가 서로 다른 시공간의 축을 교차해가며 탈주의 가능성을 모색한 지점을 추적한 안소연의 글 「현혹하는 새로움 앞에서」(2020)는 이 출판물 이후에도 전소정 작업의 비평적 지도 그리기에 주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조주현 (총괄기획자/ 공동책임연구자)

Research Overview

This publication, conducted as part of the ARKO's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2022-2023, serves as a temporary refuge - a tent pitched within the vast expanse of Sojung Jun's art world. It guides readers and viewers into an open sea devoid of permanent anchorages, focusing on the creation of artworks and critiques that resist easy elucidation. The co-lead researchers decided on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after a close discussion with the artist, and accordingly, two main researchers and five external writer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The project aims to produce academically significant essays, as each researcher buries themself in their studies on one work. Through this project, we tried to see how the artist's unique and radical aesthetic expressions or inventions, in which she condenses all the energy of her life and surroundings into a single work, arouse controversy at a critical contemporary moment and prove how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way we see and understand our world.

The research team navigated the vague contemporary time and space that one work can reach to trace back to a specific moment from the infinite time and space occupied by Jun's art and reviewed the path Jun's works took to weave the narratives of humanity and history. The team initiated its research in the middl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 moment that became the biggest turning point in modern human history in the last 100 years Jung-yeon Ma and Seong Eun Kim, who joined as the principal researchers, each produced in-depth art critiques based on video and anthropology in the specific time and space of '2021', when restrictions on physical movement and the intersection of real space and online space accelerated. Their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two pieces, *The Ghost in the Machine* (2021) and *Green Screen* (2021). Through these two seminal studies, they were able to analyze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affected Jun's work and how the artist's work changed afterward.

In "Reviews on Sojung Jun's Visual Media Practices: Focusing on *The Ghost in the Machine*" (2023), researcher Jung-yeon Ma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 of 'drones' used in *The Ghost in the Machine*, which was produced and released during the pandemic, and explores the ghostliness of contemporary images produced by this machine as a hybrid medium fused with living things. For *The Ghost in the Machine*, a joint work with collaborator Jungju An, she created a theatrical situation set in an art museum that was closed temporarily and whose operation was suspended frequently due to COVID-19. Jung-yeon Ma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 totalitarian state ruled by the military or war, drawing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Seoul, where this work was installed, and whose building was previously used by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In another work produced in 2021, *Green Screen*, Sojung Jun explores the (im)materiality of 'sound' that has deviated from visual-centered modern culture. A principal researcher Seong Eun Kim sees this work as a fantastic display of Jun's finesse in association with her previous work that dealt with sounds such as language and music. Kim noted that this video captures the scenery of the demilitarized zone, an area where human access has been restricted for a long time, using a 'listening-dominated method of communication'; instead of a 'showing-dominated method of communication.' She theorizes on Jun's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sound anthropology.'

Additionally, in a series of works dealing with the music of North and South Korea, Jun highlighted the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of musical aesthetic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between cultures, and between eras, through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and composition. Jeanette Bisschops, who joined as an external writer, describes the process of conversation, composition, and accompanied performance between a North Korean defector pianist and a South Korean pianist in "One More Time with Feeling" (2023), a critical essay analyzing Jun's *Early Arrival of Future* (2015), taking note of the sense of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that passes between the two performers and the audience.

Jun successively released *Forest Ghost Flower* in 2022, and *Syncope* in 2023, mingling hybrid identities of destruction and regeneration, artificiality and nature, and machinery and ecology taking place in invisible areas with motifs of ecological relationships and entanglement. In an interview with Martin Germann, an external author of this study, Jun mentions that her media works are about proposing to overturn and reconsider thoughts 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ings perceived as homogeneous, quoting agricultural historian Tatsushi Fujiwara.

After the pandemic, Jun delved into issues of movement and the speed of humans, plants, and data. She overlaps the speed of language crossing borders, the ecological speed of plants escaping the garden, the speed of trains, and the speed of data. Through this exploration, Jun captures the essence of 'speed' as a sensation that delineates the divide between pre-modern and modern eras, thereby exposing the underlying fabric of contemporary society fractured by these dynamics. The artist illuminates how people, plants, and invisible things like data that have departed from the modern pace traverse boundaries and manifest in various forms. This allows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physicality of those undergoing repeated transformations and metamorphoses through senses other than sight.

This artist research project carried out for two years is anchored in preexisting research by many critics with whom the artist has worked in a loose alliance for over 10 years. This publication includes critical essays on Jun's cardinal works produced before 2021 written by Nam See Kim, Soyeon Ahn, and Hojeong Hur. Hojeong Hur's unpublished manuscript "Stranger, from Voyage to Teleportation" (2019/2023), analyzes the sensuously repeated image of the stranger from Jun's early work

to recent pieces in linguistic, political, cultural, and geopolitical contexts. Nam See Kim's "Media and the Order of Senses" (2017) analyzes the creative process of Sojung Jun, who achieved a new integration of the senses through manipulation and comb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aesthetics. Soyeon Ahn's "Withstanding Delusive Novelty" (2020) traces the point where Jun sought the possibility of escape by crossing different axes of space and time in her solo exhibition *AU MAGASIN DE NOUVEAUTES* (2020) inspired by a study on an early poem by Korean modern avant-garde poet Yi Sang. These are all articles that will be a primary guide in drawing a critical map of Jun's work even after this publication.

Juhyun Cho
(Comprehensive Planning/
Co-lead Researcher)

Three Ways to Elis 2008–2010

〈Three Ways to Elis〉는 세 사람의 기억을 통해 50년간 숲 속에 자신만의 마을을 짓고 살았던 무용수 엘리스(Elis)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이다. 2007년 작가가 핀란드 헬싱키를 여행하며 시작된 작업은 2009년 HIAP 레지던시 초청을 계기로 완성되었다. 엘리스는 숲 속의 땅을 불하받는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했고 숲 속에 마을을 짓고 생활했다. 누군가에게는 춤을 추는 무용가로, 오두막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에게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기록 속 영상에서는 도취된 듯 춤에 몰입한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스스로를 무용가로 생각하고, 오두막 주위에 인형으로 무보를 만들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엘리스의 모습은 '은둔의 예술가'라는 이미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인된 활동을 펼치거나 명성을 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예술애호가 혹은 아마추어 예술가, 심지어 사회에 부적응한 광인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한 인물에 대한 기억은 엇갈리고, 그의 예술에 대한 평가도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파편적이다. 무엇이 예술인가. 무엇이 한 사람을 예술가로 만드는가. 인간에게 예술은 무엇인가 등 여러 질문들을 제기하게 된다.

일상의 전문가 연작 2010–2015

전소정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예술과 기술의 경계,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 있는 인물들을 주목하고 탐구하며 일련의 연작을 발표했다. 인물들은 자연의 리듬과 주기 속에 생존하거나 섬세한 감각을 작동시키는 직업을 보여주며 작업은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리듬에 관심을 기울인다. 총 12편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일상의 전문가' 시리즈는 등장하는 인물들- 〈불의 시〉(2015)의 옹기 제작자, 〈사신〉(2015)의 박제사, 〈따뜻한 돌〉(2015)의 수석전문가, 〈열두 개의 방〉(2014)의 〈보물섬〉(2014)의 제주 해녀, 〈일성당자해기〉(2012)의 활자주조공, 〈My Fair Boy〉(2012), 〈되찾은 시간〉(2012)의 극장 간판화가, 〈마지막 기쁨〉(2012)의 줄광대, 〈어느 미싱사의 일일〉(2012)의 기계자수공, 〈The King of Mask〉(2010)의 변검술사, 〈Something Red〉(2010)의 김치 공장 조리사-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몸과 마음에 침전되는 '습관'을 포착하고, 그로부터 예술(가)의 본질을 찾는다.

EUQITIRC 2017

전소정이 2017년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립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해 시청각에서 출판한 책이다. 전소정은 이수연, 이성휘, 현시원, 방혜진, 김홍기, 김해주, 안소현, 조만수에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앞으로 만들어질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선행하는 작품에 대한 후속적인 행위가 아닌 독립적 비평을 의뢰했고, 7명의 큐레이터/연구자는 각자의 방식대로 회신했다.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비평 행위가 이루어지고 소통되기보다 일종의 관례처럼 '전시를 통한 작품 발표'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나 승인으로서 '리플렛/도록에 덧붙는 비평문'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EUQITIRC는 작품에 대한 비평가/혹은 비평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위(발언권)를 가진 동시대의 주체들에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비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먼저 온 미래 2015

〈먼저 온 미래〉는 2002년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철웅과 남한의 피아니스트 엄은경이 함께 작곡한 듀엣곡 〈시나브로〉를 협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시나브로〉는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이며, 이 작품에서는 두 음악가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곡은 북한 민요 ‘용강기나리’와 남한 동요인 ‘어머니와 누나’에서 기본 선율을 따 왔다. 김철웅은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수상하고 유학한 피아니스트였으나 여자친구에게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을 연주해줬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뒤 탈북을 결심했고, 현재 서울에서 연주와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유령들 2017

2017년 전소정은 북서울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타이틀매치에 김차섭과 함께 선정되었다. 당시 전시의 제목은 《내 세대의 노래》였고, 〈유령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유령들〉에서 작가는 프랑스 작가 시리엘 페르멩자와 주고받은 편지와 각자의 어린 시절의 사진과 영상을 배경으로 소개한다. 시리엘은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보여주며 자신의 출생, 고향인 스페인의 발렌시아, 그곳으로 떠나온 자신의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소정은 ‘한’이라는 번역되기 힘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둘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보여준다. 전소정은 파리에 도착했을 때 택시에서 만난 캄보디아인과의 대화를 전하고, 동지팥죽과 도깨비를 소개한다. 시리엘도 샤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과 영상이 병치된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태어난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서로의 나라에 머물기도 하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겹쳐지는 순간과 경험들이 발견된다.

이클립스 I, II 2020

〈이클립스 I〉와 〈이클립스II〉는 각각 2채널 영상으로, 하프와 북한 가야금을 위해 작곡한 두 곡 〈파편〉과 〈칠석〉의 연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작곡가 윤이상(1917-1995)과 그의 음악을 중심에 두고 동료 작곡가, 연주자들과 나눈 대화로부터 출발한다. 작품이 출발하고 있는 윤이상의 〈더블 콘체르토〉(1977)는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남북 관계에 비유한 곡이다. 윤이상의 〈더블 콘체르토〉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헤어짐을 그리고 있다면, 〈이클립스 I, II〉는 서로 다른 두 개별적 존재와 리듬에 집중한다. 곡을 작곡한 신수정은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한 후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김지영은 미국에서 수학한 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소정은 이들과 함께 선배 작곡가이자 분단 한국의 상황 속에 놓여있었던 윤이상을 단초로 남한과 북한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면서 탈북 예술가들에 대한 리서치를 수행해왔다.

광인들의 배 2016

〈광인들의 배(La Nave de Los Locos)〉(2016)는 우루과이 출신의 망명 문학가 크리스티나 페리 로시(Christina Peri Rossi)의 『광인들의 배』(1984)를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망명자이자 여성, 동성애자인 페리 로시의 소설이 망명 경험을 통한 자신의 중간자적 존재에 대한 자각에 기인한다면, 전소정의 영상은 소설의 이야기를 현재적 맥락으로 이동하려는 시도를 담아낸다. 페리 로시에게 보내는 가상의 편지 형식으로 쓴 텍스트를 중심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작가가 도시를 바라보는 시점과 경계와 이동에 관한 경험담을 엮어내는 영상은 오늘날 글로벌한 세계상에서 거듭 일어나고 있는 의미적 “광인들의 배”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물리적인 이동으로부터 자발적이고 사유적인 이동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킨다.

Interval. Recess. Pause. 2017

〈Interval. Recess. Pause.〉는 2016년 페르노 리카 펠로우쉽에 선정된 전소정이 파리 빌라 바실리프에서 머물면서 연구했던 공감각과 차학경의 『딕테』(1982)에서 출발한다. 이 작업에서 그가 인용한 테레사 학경 차(Theresa Hak-Kyung Cha,1951–82)의 『딕테Dictée』(1982)는 여성이며, 한국인이자 미국인이고, 한국어-불어-영어 사용자인 차학경의 위상을 떠올리게 하면서 정확도를 기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무용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절망하고 탄생하라 2020

〈절망하고 탄생하라〉는 전소정의 에르메스 미술상 수상을 기념하여 개최된 《새로운 상점(AU MAGASIN DE NOUVEATUES)》(2020)에 출품된 영상작품이다. 에르메스 미술상 수상 작가에게 주어지는 파리 레지던시 체류 기간 동안 작가는 시인이자 건축가였던 이상의 시 AU MAGASIN DE NOUVEATUES(1932)를 단서로 역사의 연속성 안에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다시 바라보고자 했다. 작가는 100여 년의 시차 안에서 파리와 서울 사이 시공간의 축을 교차시키며 도시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는 개인들에 실천에 주목하고, 자본주의의 반전의 단서와 현재로부터의 탈주로 가설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꾸준히 문학을 레퍼런스로 삼아 잊혀진 영역에 대한 관심을 보충해 온 전소정은 동명의 전시 《새로운 상점(AU MAGASIN DE NOUVEATUES)》을 통해 서울의 근대적 속도를 재고하는 영상, 조각,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기계 속의 유령 2021

〈기계 속의 유령〉은 기술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다양한 형식의 예술과 기술을 통해 질문하고 사유해보고자 기획되었던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전소정의 오랜 협업자인 시각예술가 안정주와 공동작업한 작품이다. “미술관을 무대로 일어나는 일종의 연극적 상황”을 구축했던 이 작업의 설치는 MMCA 서울관 안 서울박스라고 불리는 천정이 높은 공간에 펼쳐진 움직이는 구조물, 정해진 시각에 구조 사이를 유영하는 AI 드론의 비행 퍼포먼스, 그리고 이 무대를 기록하고 송출하는 CCTV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 CCTV의 영상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전시장 내에서 상영된 동명의 제목을 단 단채널 영상으로 작품이 구성되었다.

그린 스크린 2021

영상 합성기술에서 임시적 배경을 뜻하는 ‘그린 스크린’과 중의적 의미로 사용된 〈그린 스크린〉은 오랜 시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국경의 풍경,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한다. 같은 해 제작된 〈기계 속의 유령〉에서 밤섬의 파괴와 재생, 기계와 생태를 가로지르는 분열적 교환의 에너지를 탐구했던 전소정은 〈그린 스크린〉을 통해 거의 정지화면에 가까운 정적의 공간을 촬영하고 국경의 풍경 이면에서 들려오는 무수히 많은 소리에 주목한다.

이글거리는 녹음으로 가득한 〈그린 스크린〉은 “자연의 압도적인 생명력과 힘을 보여주는 가능성의 중간 지대이자, 남북 사이 시도되었던 적대와 환대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중첩시켜 투사하는 스크린”이다. 여러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의장대 사열과 시민들의 환호, 개성 공단의 기계 진동, 지뢰 폭발, 서로를 향한 확성기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풍경의 소리가 화면의 균열을 일으키며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방향감각을 잃게 만든다.

야고 2022

팬데믹을 지나며 전작들을 통해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파괴와 재생, 인공과 자연, 기계과 생태의 하이브리드 정체성에 대한 관찰을 지속해온 전소정은 안정주와 함께 작업한 〈야고〉에서 그 모순되는 것들 사이에 발생하는 생명의 순환과 에너지의 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를 소리로 탐색한다. 제주 가파도 레지던시에 머물며 리서치하고 제작한 〈야고〉는 제주 한라산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를 중심으로 동식물, 숲, 바다, 번식과 멸종의 이미지를 영상에 담았다. 수형이 아름다워 한국을 떠나 멀리 서양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구상나무가 한국에서 기후 변화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 점차 고지대로 이동해 가거나, 집단 고사한 이후 땅 밑의 균류의 활동으로 재생되는 등, 인간들의 활동과 환경에 대응해서 이 생명체들이 펼쳐내는 배치와 연결, 다양한 존재들의 얽힘과 관계가 이 작품의 주요 모티프이다.

싱코피 2023

전소정이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에 신작으로 선보인 작업이다. 소리를 찾아 먼 곳으로 떠난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여정을 그린 이 작업에서 작가는 자본과 근대의 속도 밖에서 유랑하는 사람들과 존재에 주목한다. 신속성, 효율성, 합리성에 맞춰진 근대화의 속도에서 이탈한 존재들을 탐구한 이 작업은 프랑스 한국계 입양아, 재일 조선인 등 경계를 넘고 이주하는 여성들의 서사를 '소리'로 연결한다. 타악기를 두드려 합주하는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가믈란 연주가 매개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합리적 보기와 읽기를 넘어 공감각적 소리와 촉감을 통해 감지된다.

Three Ways to Elis 2008–2010

Three Ways to Elis is a work motivated by her participation in the HIAP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me) residency in Helsinki, Finland in 2009. It is a documentary-style video that traces Elis, a dancer who lived in a remote cabin in the countryside for over 50 years, through the memories of three people. Ellis provided labor in exchange for land and lived in a cabin in the forest. She appears as a dancer to some, as an unknown person to children playing near the hut, and as an old woman immersed in dancing as if intoxicated in the video. Ellis, who thought of herself as a dancer, made dance notations around her cabin with dolls, and clipped related articles, suits the image of a "reclusive artist." And yet, she seems to be an art lover or an amateur artist, or in harsh words, a madwoman and a socially awkward outcast, in that she didn't engage in socially recognized activities or make her reputation known. Memories of a person are conflicting, and evaluations of her art are so fragmented that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se are about one person. This video makes the audience raise many questions: what is art?; what makes a person an artist?; what is the nature of art for humans?

Everyday Experts Series 2010–2015

From 2010 to 2015, Sojung Jun created a series of works focusing on and exploring people straddling the intersection of art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boundary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istic expression. The characters survive within the rhythms and cycles of nature or show occupations that activate their delicate senses, and the work pays attention to the rhythms that make up their lives. The Everyday Expert series consists of a total of 12 videos. These include *Treasure Island* (2014) featuring haenyeo, female divers in Jeju register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Sun and Star: Record of the Works* (2012) documenting a type foundry in Taipei that inherited the disappearing family typesetting business; *My Fair Boy* (2012) and *Time Regained* (2012) featuring theater sign painters who once enjoyed prestige but have now disappeared; *Last Pleasure* (2012), a tightrope clown; *A Day of a Tailor* (2012), a machine embroidery worker who is not usually recognized as a craftsman; *The King of Mask* (2010), a face changing or bian lian performer, and *Something Red* (2010) featuring a kimchi factory cook.

EUQITIRC 2017

EUQITIRC is a book Sojung Jun published in 2017 by Audio Visual Pavil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e Seoul Museum of Art, and the Arts Council Korea. Jun asked Sooyoun Lee, Sunghui Lee, Seewon Hyun, Haejin Phang, Hong-Ki Kim, Haeju Kim, Sohyun Ahn, and Mansoo Cho to write critiques of her "works that do not yet exist and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In general, critical essays are requested after an artwork is made. Seven curators and researchers responded in their own way. In a situation where critical text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as an institutional procedure or approval for the presentation of works through exhibitions, *EUQITIRC* asks critics or contemporary subjects who have the authority to express opinions about what the meaning of criticism is. This is done to determine whether such texts should be considered as acts of criticism being carried out voluntarily or merely as a custom.

Early Arrival of Future 2015

Early Arrival of Future presents pianist Cheol-woong Kim,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2002, and South Korean pianist Eun-Kyung Uhm performing the duet song *Sinabro* together. Sinabro (시나브로) is a Korean word meaning "little by little without knowing," and refers to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to create music. The basic melody of this piece is appropriated from the North Korean folk song *Ryonggang Kinari* and the South Korean children's song *Mother and Sister*. Kim was a pianist who garnered an award at the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and studied abroad, but after suffering hardships for playing Richard Clayderman's *Autumn Whispers* to his girlfriend, he decided to defect from North Korea. He is currently performing and teaching in Seoul.

Specters 2017

Sojung Jun was selected with Tchah-sup Kim for the *2017 Title Match* held at the Buk-Seoul Museum of Art.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t the time was *The Song of My Generation* in which she displayed *Specters*. Specters is based on letters she exchanged with French artist Cyrielle Perminjat, along with photographs and videos of each artist's childhood. Cyrielle shows her birth certificate and talks about her birth, her hometown of Valencia, Spain, and her ancestors who left there. Jun touches on *han* (한, 恨, unresolved resentment or hatred), a difficult-to-translate emotion, and the two continue to tell stories about themselves and show photos of their childhood. Jun conveys her conversation with a Cambodian she met in a taxi in Paris, and introduces *patjuk* (팥죽, red bean porridge) and goblins. Cyrielle also tells a story about shamans, and photos and videos from their childhood are juxtaposed. Although both artists were born in distant regions and appear to have nothing in common, their experiences overlap during their stay in each other's countries. Cyrielle, who arrived in Korea from France, and Jun, who was in Europe for a residency, bond over their shared experience of being foreigners in each other's countries.

Eclipse I, II 2020

Eclipse I and *Eclipse II* are two-channel videos, respectively produced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wo pieces of music, *Fragment* and *Chilseok*, composed for harp and North Korean gayageum. These works were inspired by her conversations with fellow composers and performers, focusing on composer Isang Yun (1917-1995) and his music. Isang Yun's *Double Concerto* (1977), from which these videos begin, compares the tale of Gyeonu and Jiknyeo (The Cowherd and the Weaver Girl)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le Isang Yun's *Double Concerto* portrays the heartbreaking separation of Gyeonu and Jiknyeo, *Eclipse I* and *II* focus on two different individuals and rhythms. Soo-jung Shin, who composed the music, studied in Austria, and lives and works in Guatemala, while Ji-young Kim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and lives and works in Seoul. Sojung Jun has continued her interest in South and North Korean music in collaboration with them and has been researching North Korean defector artists, motivated by Isang Yun's music, a senior composer who witnessed Korea's division.

The Ship of Fools 2016

The Ship of Fools (2016) takes its inspiration from *The Ship of Fools* (1984) by Christine Peri Rossi, an exiled writer from Uruguay. While the novel by Perry Rossi, an exile, woman, and homosexual, is derived from a self-awareness of her intermediary existence through her experience of exile, Sojung Jun's video endeavors to transfer its story into the current context. This video weaves Jun's experiences with the city, borders, and movement as a stranger in Barcelona into the format of a letter to Peri Rossi. In this video she views the "ships of fools" that repeatedly take place in this globalized society from different angles, expanding this story from physical movement to spontaneous and meditative movement. So she looks into "the ships of fools' in this globalized society now and expanded her story from physical immigration to psychological one.

Interval. Recess. Pause. 2017

Interval. Recess. Pause. was initiated by Jun's research on synesthesia and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1982) during her stay at Villa Vassilieff in Paris when she was awarded the Pernod Ricard Fellowship in 2016. Theresa Hak Kyung Cha was a Korean-American who studied filmmaking in France and has published literary and video works in Korean, English, and French. Her magnum opus Dictee, which was published in 1982, is an abstruse yet distinctive work that has room for continued interpretation. It is a work that is studied and talked about not only in the art world but also in the literary scene. *Dictee*, which is based on Cha's personal experience of learning English and French as an immigrant, has been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for those who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exile. It is a creation of an immigrant and an artist who expressed herself in a foreign land using another language.

Despair to Be Reborn 2020

Despair to Be Reborn is Juns' video that was displayed at *Au Magasin de Nouveautes* (2020), her solo show to commemorate her winning of the Hermes Foundation Missulsang. During her residency in Paris, given to the artist who was awarded the art prize, Jun tried to look at the present through the lens of the past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continuity, inspired by AU MAGASIN DE NOUVEATUES (1932), a poem by Yi Sang, a Korean poet and architect. She examines the practices of individuals who pioneer new paths within the urban framework, seeking clues for the reversal of capitalism and exploring the potential for hypotheses as an escape from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his exploration intertwines the axes of time and space between Paris and Seoul, spanning approximately 100 years. Jun, who draws on literature to complement her fascination with overlooked domains, showcased videos,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that reevaluate Seoul's modern trajectory in her exhibition titled AU MAGASIN DE NOUVEATUES, echoing the themes of the poem of the same title.

The Ghost in the Machine 2021

The Ghost in the Machine was conceived as part of the *Performing Arts 2021: Multiverse* project, initia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aimed at questioning and reflecting on the rapidly evolving facets of society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utilizing various forms of art and technology. This work was created in partnership with Sojung Jun's long-time collaborator, visual artist Jungju An. Designed to evoke "a theatrical situation where the museum becomes a stage," the project comprises makeshift stage structures unfolding within the high-ceiling space known as Seoul Box at the MMCA, Seoul. It features an AI drone flight performance maneuvering through the structures at scheduled times, with the entire performance being documented and transmitted via CCTV. Additionally, an online platform streams live footage from the CCTV, while a single-channel video with the same title is displayed at the venue, offering viewers a multifaceted engagement with the piece.

Green Scree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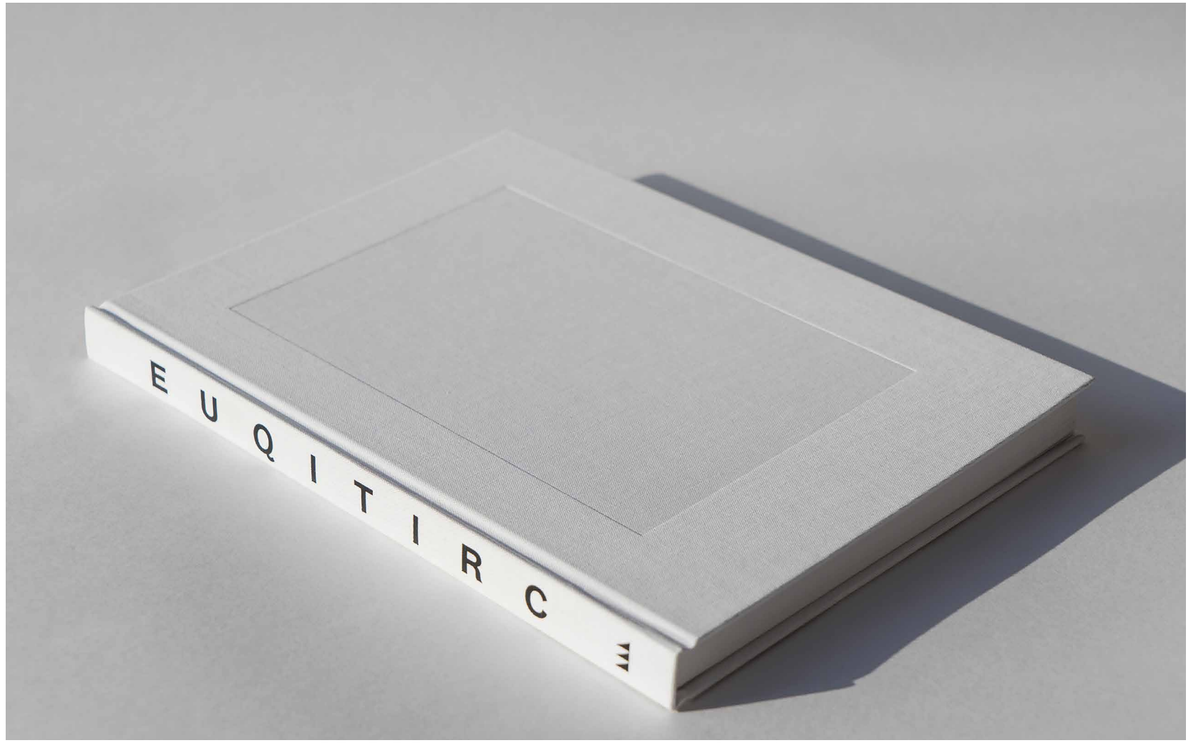
Green Screen employs the term “green screen” in an ambiguous manner, referencing its use as a temporary background in film and video techniques such as chromakey. The setting is the demilitarized zone of the Korean Peninsula, a border landscape where entry and exit of people has long been restricted. Sojung Jun, who previously delved into themes of destruction and regeneration in Bamseom and explored the energy of disruptive exchange between machines and ecology in *The Ghost in the Machine*, filmed a static space closely akin to a still image in *Green Screen*. Here, she captures the myriad sounds emanating from the border landscape, providing a unique perspective on this heavily restricted area.

Forest Ghost Flower 2022

Sojung Jun has consistently engaged in the themes of destruction and regeneration in concealed arenas, exploring the hybrid identity of artificiality and nature, machinery, and ecology in her previous artworks. In her latest project, *Forest Ghost Flower*,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Jungju An, she turns her focus to the cycle of life and the interplay of energy between opposing elements, examining these dynamics through the medium of sound. Researched and produced during her residency at the Gapado Residency in Jeju, *Forest Ghost Flower* captures the imagery of flora and fauna, forests, the sea, reproduction, and extinction. It particularly emphasizes the Korean fir trees that inhabit the alpine region of Hallasan in Jeju. These trees, known for their beautiful shape and used as Christmas trees in the West, have gradually lost their habitat in Korea due to climate change, forcing them to migrate to higher altitudes or regenerate through the activity of underground fungi after mass die-offs caused by human activities. At the heart of this work lies the arrangement and interconnectedness of these life form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as well as the complex entanglements and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beings within the ecosystem.

Syncop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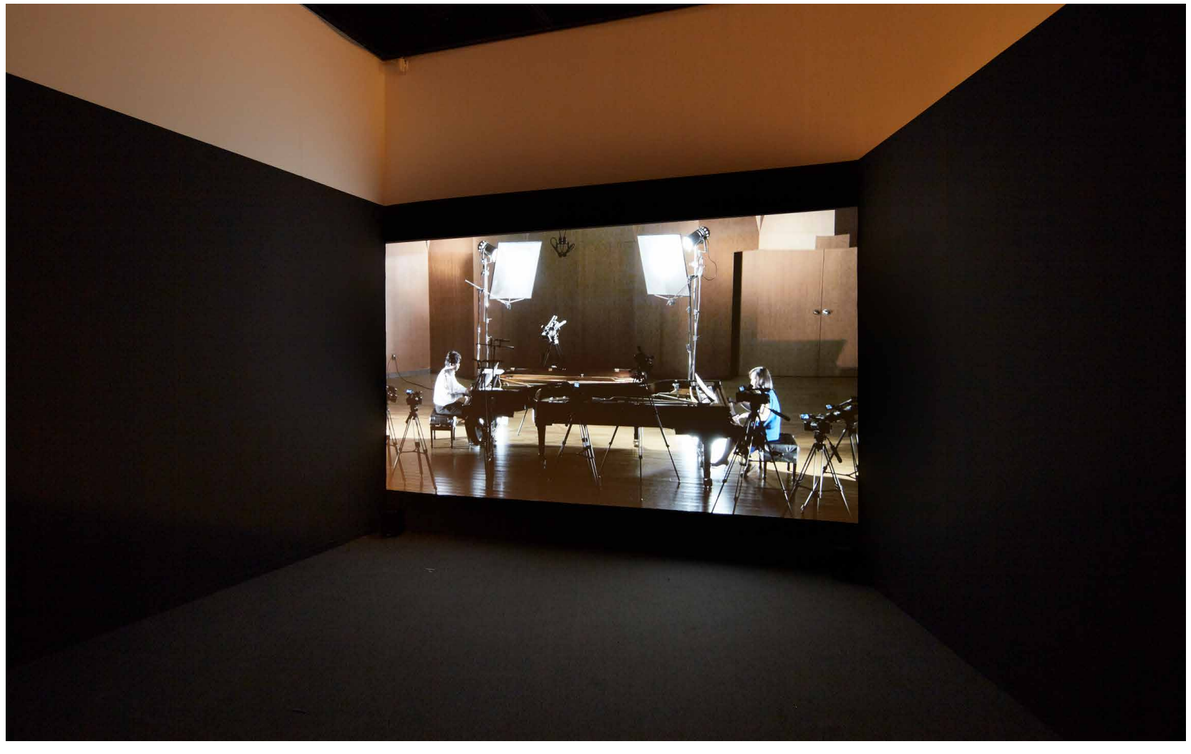
Syncope is a piece exhibited at the MMCA exhibition commemorating Sojung Jun’s nomination of the *Korea Artist Prize 2023*. In this work, which depicts a musical journey involving performers who traverse distant lands in search of sound, Jun focuses on individuals and entities existing beyond the realms of speed, capital, and modernity. Exploring those who diverge from the pace of modernization characterized by speed, efficiency, and rationality, Syncope weaves together the stories of women crossing borders and immigrating, such as Korean adoptees in France and Koreans residing in Japan, through the medium of sound. These narratives, mediated by Gamelan, the traditional ensemble music of Indonesia performed with percussion instruments, are experienced through synesthetic sound and touch, transcending conventional modes of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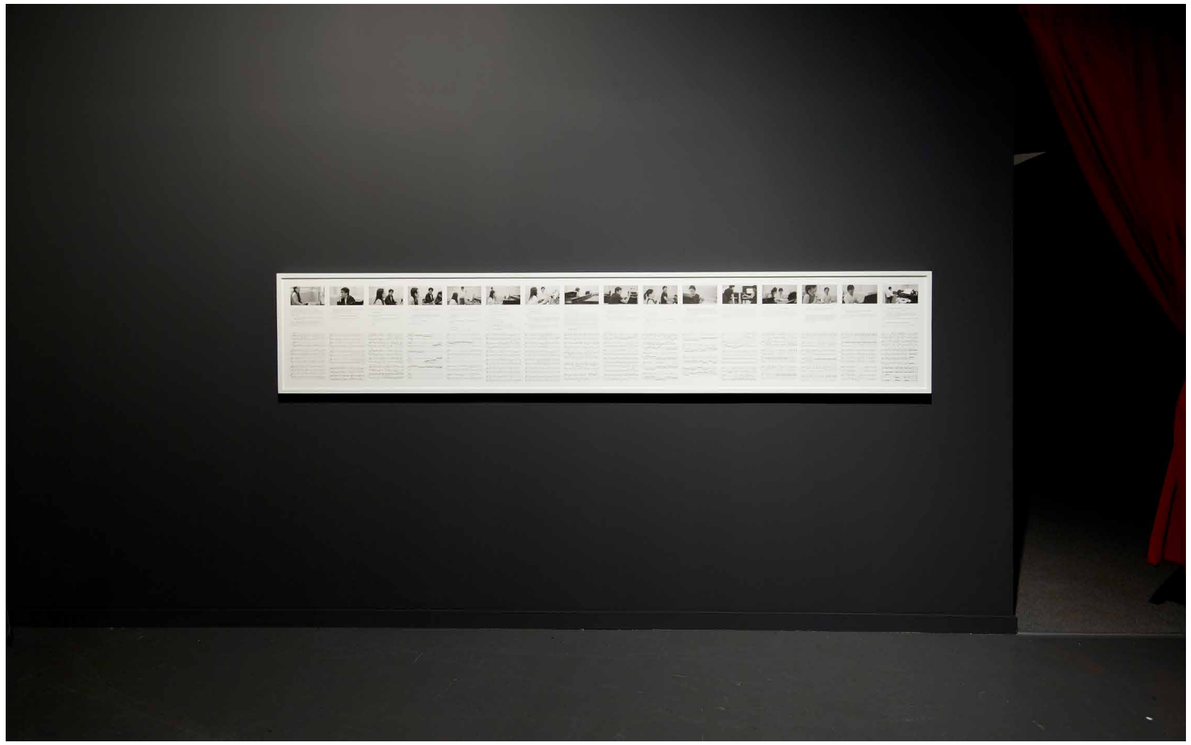






EUQITIRC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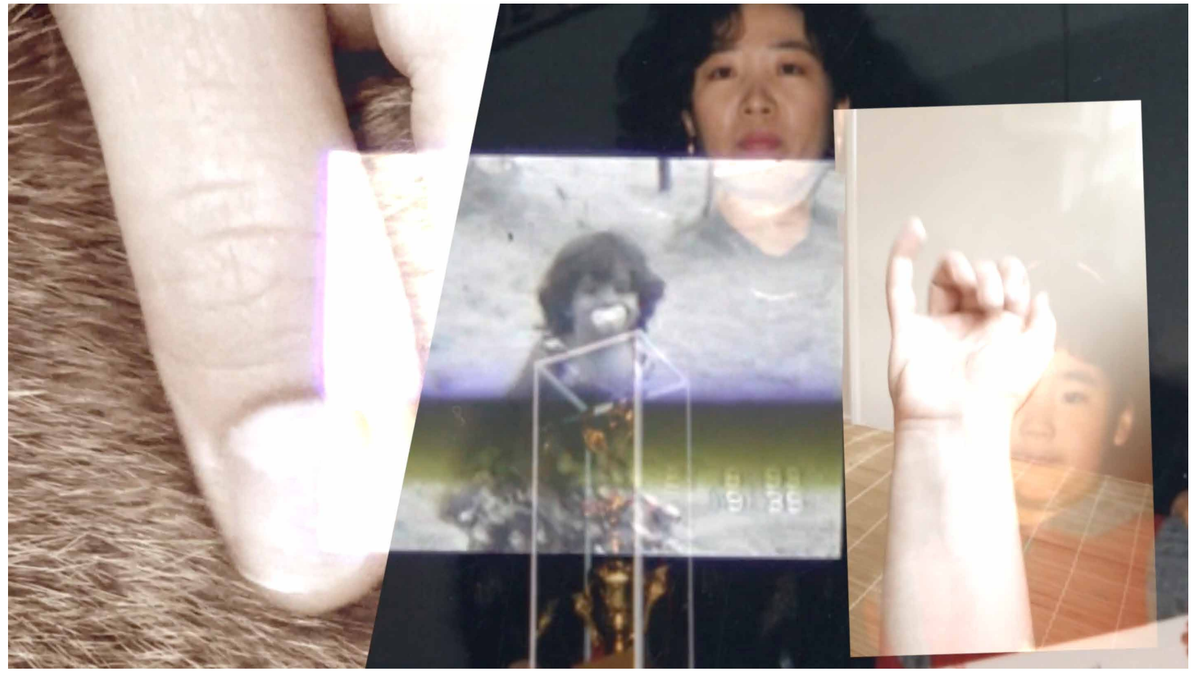


먼저 온 미래
Early Arrival of Future
2015









유령들
Specters
2017



이클립스 I, II
Eclipse I, II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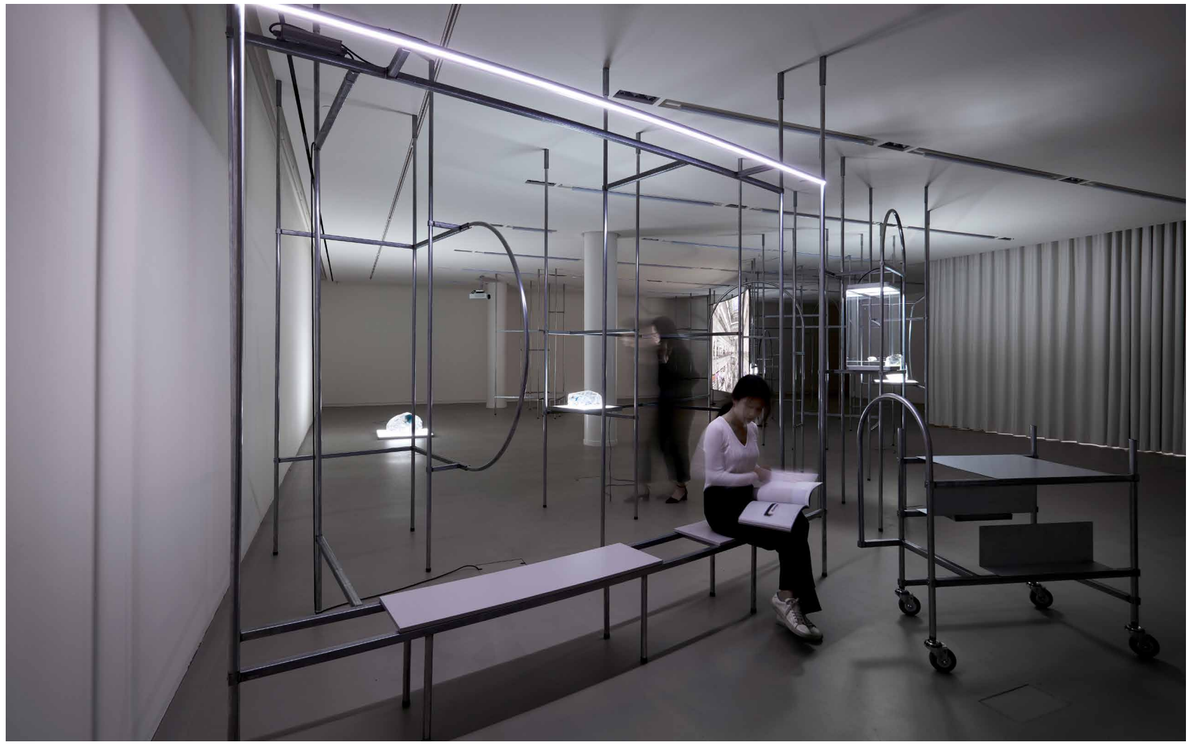
광인들의 배
The Ship of Fools
2016



Interval. Recess. Paus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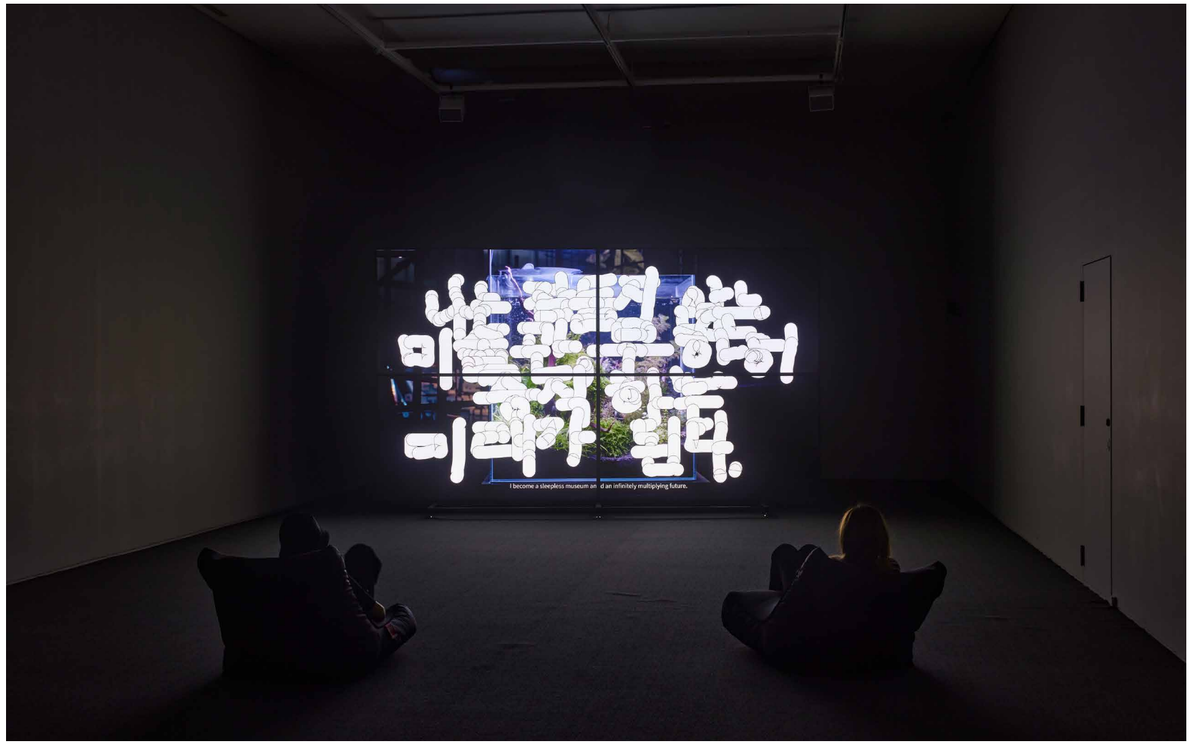




절망하고 탄생하라
Despair to be Reborn
2020







기계 속의 유령
The Ghost in the Machin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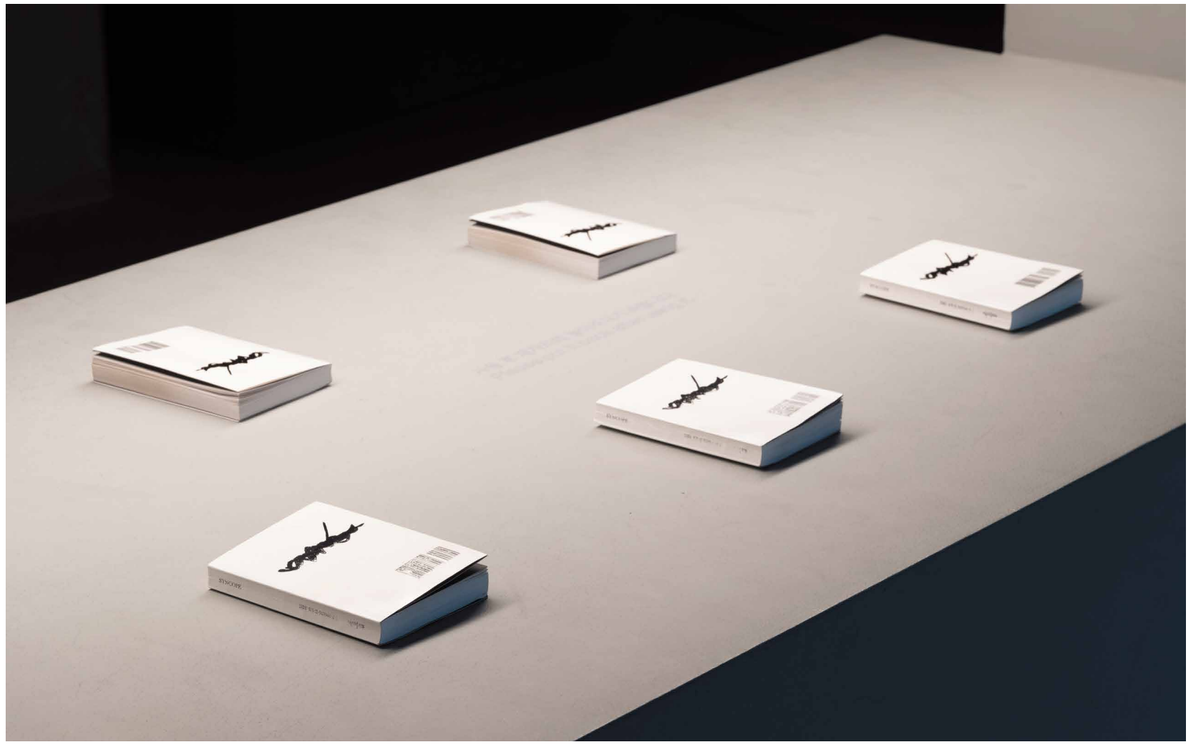
그린 스크린
Green Screen
2021



야고
Forest Ghost Flower
2022







싱코피
Syncope
2023



전소정

Education

2006–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아트, 서울
2001–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서울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3 Overtone, 바라캇 컨템포러리, 서울
2022 그린 스크린, 리움미술관, 서울
2020 새로운 상점,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7 Kiss me Quick,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폐허, 두산갤러리 서울, 서울
2014 밤이 다 되었으니 이 밤을 잊으십시오,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2012 이면의 이면,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10 심경의 변화, 인사미술공간,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3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It was the way of walking through narrative, 프리즈 필름, 서울
황해어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회화 아닌, 대구미술관, 대구
숨 쉬는 그릇의 울림, Filmhuis Cavia, NED, 암스테르담
전시의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미래 수집,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2022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 샤르자; 아르데스, 스톡홀름
바라캇 컨템포러리, 프리즈 No.9, 코크 스트릿, 런던
찬란하게 울리는,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
Checkpoint. Border Views from Korea,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볼프스부르크 시립미술관, 볼프스부르크
Cernuschi Art Video #5, 세르누쉬 미술관, 파리
나는 미술관에 OO 하러 간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시적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Our Life, 오사카 국립미술관, 오사카
경계협상,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시드니
찬란한 날들,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직면하는 이동성:횡단/침투/정지하기,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1 수요일은 인디고블루,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CIRCA, 피카딜리 라이트, 런던;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 서울; 신주쿠 유니카 비전, 도쿄
다원예술 20021: 멀티버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Border Crossings – North and South Korean Art from the Sigg Collection, 베른시립미술관, 베른
전술들,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보더리스 사이트, 문화역서울 284, 서울
They do not understand each other, Tai Kwun JC Contemporary, 홍콩
2020 리듬 풍경, 오타와시립미술관, 오타와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 토끼 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9 Now is the time: 우전 국제현대미술전, 우전
In one drop of water, 뉴사우스웨일스 미술관, 시드니
디어 시네마: 차이와 반복, 국립현대미술관 MMCA 필름 앤 비디오, 서울
떠도는 영상들의 연대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디지털 아카이브, 서울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2018 비디오 나이트, 검은 밤, d/p, 서울
Objectif Video Nice, 비디오아트 페스티벌, 니스
Unclosed Bricks: 기억의 틈, 아르코미술관, 서울
허구의 마찰, HIAP -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광주
Re:Sense,space*c 코리아나미술관,서울
동시적 순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씨실과 날실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잃어버린 세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플립북: 21 세기 애니메이션의 혁명, 일민미술관, 서울
2017 타이틀매치, 김차섭 vs. 전소정(내 세대의 노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둥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L'Art au centre, 팔레드 도쿄, 파리
Tell me the story of all these things. Beginning wherever you wish, tell even us., 빌라 바실리프, 파리
In search of global poetry: Videos from the Han Nefkens collection, He Xiangning Art Museum, 선전
Le monde Plié, La Générale, 파리
After the Mirror,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파리
2016 Living on the border, 실렌시오, 파리
Travelling 렌느 영화제, 렌느 미술관, 렌느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제11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히스토리코드, 제3회 난징 국제 아트페스티벌, 바이지아후미술관, 난징
퇴폐미술전,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Travelling 렌느 영화제, 렌느 미술관, 렌느
Who's Who, 시청각, 서울
2015 장미로 엮은 이 왕관,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아나 : 잠시만 눈을 감아보세요, 마라야 아트 센터, 샤르자
리듬 풍경, 경기도미술관, 안산
광복70주년기념 (북한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Wirkkala Revisited, 헬싱키 디자인 미술관, 헬싱키
싱글채널비디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제15회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서울
2014 왜 바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부는가?, 프로젝트 스페이스 큐브, 타이페이
미술을 위한 캐비닛, 아르코미술관, 서울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퍼블릭 스토리, 안양
HOME/WORK, 시청각, 서울
2013 The Shadow of the Future, 부카레스트 국립현대미술관, 부카레스트
종합극장 : Interspace Dialogue,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What We See, 오사카 국립미술관, 오사카
2012 플레이타임, 문화역 서울 284, 서울
Photographic!,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
아트스펙트럼 2012,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연극없는 연극, 정치없는 정치, 서울변방연극제, 서울
Building Stories, Pilar Corrias Gallery, 런던
2011 EXiS,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한국 영상자료원, 서울
2010 EXiS,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필름포럼, 서울
오프앤프리 국제 영화제, 아트하우스 모모, 서울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9 Cream-요코하마 국제 미디어 페스티벌, 요코하마
플랫폼 인 기무사, 옛 기무사(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08 연극 되어지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Fellowship & Award

2023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18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2016 눈 예술상, 광주비엔날레
빌라 바실리프 페르노리카 펠로우쉽
2014 송은미술대상 대상, 송은문화재단

Publications

2023 syncope, 오르간프레스 출판
2023 그린 스크린, 리움미술관 출판
2020 ㅁ, 오르간프레스 출판
2019 폐허, 북노마드 출판
2018 부바 키키 : 공감각에 관한 단상, 미디어버스 출판
2016 EUQITIRC, 시청각 출판

Collections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
싱가포르 현대미술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울리 지그 컬렉션
부산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한네프켄 재단
제주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두산아트센터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오사카국립미술관

Sojung Jun

Education

2006-2011 MFA,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 Yonsei Univ., Seoul
2001-2005 BFA,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3 *Overtone*, Barakat Contemporary, Seoul
2022 *Green Screen*, Leeum Museum of Art, Seoul
2020 *Au Magasin de Nouveautés*, Atelier Hermès, Seoul
2017 *Kiss me Quick*, SongEun ArtSpace, Seoul
2015 *Ruins*, Doosan Gallery Seoul, Seoul
2014 *Forget this night when the night is no more*,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2012 *The other side of the other side*, Gallery Factory, Seoul
2010 *As you like it*, Insa Art Space,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3 *Korea Artist Priz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Ordinary People Splendid History,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It was the way of walking through narrative, Frieze Film, Seoul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Not Paintings, Daegu Art Museum, Daegu
Resonance of a Breathing Bowl, Filmhuis Cavia, Amsterdam
All about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Cheongju
Future Collection, Ulsan Art Museum, Ulsan
2022 *Watch and Chill 2.0: Streaming Sens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Sharjah Art Museum, Sharjah; ArkDes, Stockholm
Barakat Contemporary: Yunchul Kim, Chung Seoyoung, Sojung Jun, No 9. Cork Street Frieze, London
Radiant Echoes, Suwon Museum of Art, Suwon
Checkpoint. Border Views from Korea, REAL DMZ PROJECT, Kunstmuseum Wolfsburg, Wolfsburg
Cernuschi Art Video #5, Cernuschi Museum, Paris
On my way to the Museum, Busan Museum of Art, Busan
The Poetic Collec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Collection 2: Our Life,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Osaka
Negotiating Borders, REAL DMZ PROJECT, Korean Cultural Centre, Sydney
The Brilliant Days: Ulsan Museum of Art Collection, Ulsan Museum of Art, Ulsan
Facing the Movement: Crossing/Invading/ Stopping, Arko Art Center, Seoul
2021 *Wednesday is indigo blue*,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CIRCA, Piccadilly Lights, London; Coex K-POP Square, Seoul; Yunika Vision, Tokyo
MMCA Performing Arts 2021: Multivers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Border Crossings - North and South Korean Art from the Sigg Collection, Kunstmuseum Bern, Bern
Tactics,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2020 *They do not understand each other*, Tai Kwun JC Contemporary, Hong Kong
RhythmScape, Ottawa Art Gallery, Ottawa
Art Plant Asia 2020, Deoksugung Palace, Seoul
Collecting for All,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9 *Now is the time: The Wuzhe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The West Scenic District, Silk Factory, Rice Barn, and Wu Village, Wuzhen
In one drop of water,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Dear Cinema: Difference and Repetition, Seoul MMCA Film&Video, Seoul
Wanderers: A Video Chronology, MMCA Seoul Digital Archive, Seoul
A Day for Counting Stars: The Story of You and M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Cheongju
2018 *Video Night, Black Night*, d/p, Seoul
Objectif Video Nice, Festival d'art Video, Nice
Unclosed Bricks: Crevice of Memory, ARKO Art Center, Seoul
Fictional Frictions, HIAP-Gwangju Biennale Pavilion Project, Gwangju
re:Sense, space*c Coreana Museum of Art, Seoul
Synchronic Momen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with weft, with warp, Seoul Museum of Art, Seoul
The Lost World, SeMA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Flip Book: The Revolutionary Animation of 21th Century, Ilmin Museum of Art, Seoul
2017 *Title Match, Tchah Sup Kim vs. Sojung Jun The Song of My Generation*, SeMA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In search of global poetry: Videos from the Han Nefkens collection, He Xiangning Art Museum, Shenzhen
Samramansang from KIM Whanki to YANG Fudo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L'Art au centre, Palais de Tokyo, Paris
Tell me the story of all these things. Beginning wherever you wish, tell even us., Villa Vassilieff, Paris
Le monde Plié, La Générale, Paris
After the Mirror, Shakespeare and Company, Paris
2016 *Living on the border*, Silencio, Paris
Travelling Rennes Metropole Film Festival, Museum of Fine Arts of Rennes, Rennes
The Eighth Climate (What does art do?), 11th Gwangju Biennale, Gwangju
Historicode, 3rd Nanji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Baijia Lake Museum, Nanjing
Degenerate Art, Art Space Pool, Seoul
Who's Who, Audio Visual Pavilion, Seoul
2015 *This Rose-garland Crown*, Atelier Hermès, Seoul
The 7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NK Project, Seoul Museum of Art, Seoul
Wirkkala Revisited, Helsinki Design Museum, Helsinki
Single Channel Video,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Seoul
2014 *Why does the wind blow wherever we remember loved ones?*, The Cube Project Space, Taipei
A cabinet of exhibitions, Arko Art Center, Seoul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Public Story*, Anyang
HOME/WORK, Audio Visual Pavilion, Seoul
2013 *The Shadow of the Futur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charest
Interspace Dialogue, Seoul Museum of Art, Seoul
What We See,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Osaka
2012 *PLAYTIME*,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Daegu Photo Biennale, Daegu Art Factory, Daegu
ArtSpectrum 2012, Leeum Samsung Museum, Seoul
Seoul Marginal Theater Festival *Theater without Theater, Politics without Politics*, Seoul
Building Stories, Pilar Corrias Gallery, London
2011 EXiS, Experimental Film/Video Festival in Seoul, Korean Film Archive, Seoul
2010 EXiS, Experimental Film/Video Festival in Seoul, Arthouse MoMo, FilmForum, Seoul
Off And Fre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rthouse MoMo, Seoul
Media-Archive Project, ARKO Art Center, Seoul
2009 *Cream*: International Festival for Arts and Media Yokohama 2009, Yokohama
Platform in KIMUSA, KIMUSA, Seoul
2008 *Between the Lines*, Project space SARUBIA, Seoul

Fellowships & Awards

2023 Finalist, Korea Artist Prize, MMCA, Korea
2018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2016 Noon Art Prize, Gwangju Biennale
2016 Villa Vassilieff Pernod Ricard Fellow
2014 Grand Prize Winner, 14th SongEun Art Award,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Publications

2023 *syncope*, organpress
2023 *Green Screen*, Leeum Museum of Art
2020 *ㅁ*, organpress
2019 *Ruins*, booknomad
2018 *Bouba kiki: Dialogue on Synesthesia*, The Book Society
2016 *EUQITIRC*, Audio Visual Pavillion

Collections

Stedelijk Museum Amsterdam
Singapore Art Museum, SAM
MACBA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Barcelona
Ulsan Museum of Art
Uli Sigg Collecti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Daegu Art Museum
Suwon Museum of Art
Han Nefkens Foundati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 Museum of Art
Busan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Art
Doosan Art Center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Leeum Museum of Art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아르코 작가 조사-연구-비평
전소정 : The One Work

총괄기획: 조주현
공동책임연구자: 이수정, 조주현
주 연구자: 김성은, 마정연
해외 연구자: 마틴 게르만, 자넷 비숍
특별 기고: 김남시, 안소연, 허호정

국문 편집 및 아카이빙: 변현주
행정실무: 구예나
번역: 서울셀렉션, 이정룡, 장우진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힉

공동 발행: 더플로어플랜, 드리프팅 커리큘럼 BOOKS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전자책은 2022-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조사-연구-비평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2024 The authors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ISBN
979-11-965947-9-4(95600)

비매품

더플로어플랜
제2019-000004호
www.thefloorplan.net

드리프팅 커리큘럼 BOOKS
제2024-000001호
www.driftingcurriculum.org

ARKO 2022-2023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Sojung Jun : The One Work

Comprehensive Planning: Juhyun Cho
Co-lead Researchers: Juhyun Cho, Soojung Yi
Principal Researchers: Seong Eun Kim, Jung-yeon Ma
Overseas Researchers: Jeanette Bisschops,
Martin Germann
Special Contributions: Soyeon Ahn, Hojeong Hur,
Nam-see Kim

Korean Editor and Archivist: Hyunjoo Byeon
Administrative Manager: Yena Ku
Translators: Woojin Jang, Jeongyong Lee, Seoul Selection

Graphic Designer: Studio Hik

Co-Publishers: DriftingCurriculum Books, The Floorplan, Seoul

Publication Date: March 2024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Arts Council Korea,
2022–2023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The copyright of the book and images is retained by the auth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copy, or transmission of this publication may be made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비 조사구평